

-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6. 次期會議는 來年 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2年 4月 23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杉 浦 敏 介

(別添)

合 意 事 項

- (1) 兩國間の 技術協力増進을 爲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依한 技術提携幹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2) 今年 4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및 韓國으로

- 부터의 輸入促進을 爲한 效果的인 方案에 對해서 繼續 協力하며 檢討하는 件
- (3) 今年 2회의 「部品開發協力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및 韓國派遣을 檢討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産業一般委員會 3個 테마 中 環境問題에 대한 TASK FORCE를 編成하고, 共同作業을 開始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 25 回 共同聲明(1993年)

第25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93年 4月 15日, 16日 兩日間 大韓民國 慶州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團長外 139名,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團長外 140名이 參加하여 開催되었다.

1. 먼저, 日本側에서 金泳三 新任大統領의 就任에 對해 慶祝의 뜻을 表하고, 新政府 下에서 加一層 韓國의 發展과 兩國의 友好關係増進에 대한 期待가 表明되었다.
2.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專門委員會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1) 第19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合同會議 (1992年 7月, 日本・札幌)
 - (2) 第18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合同

會議(1992年 6月, 日本・千葉縣富浦)

- (3) 第11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合同會議(1993年 3月, 日本・東京)
- (4)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同委員會 第3回 合同會議 開催豫定 1993年 가을, 日本・東京)
3. 이어서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方向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認識을 같이 하였다.
冷戰의 時代가 終了한 오늘날, 世界各地에서는 政治的, 民族的, 宗教的 對立이 激化됨과 同時에 經濟面에서도 多難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經濟成長을 繼續하고 있는 아시아가 世界를 爲해 해야 할 役割은 至大하며, 韓國과 日本이 「아시아속의 韓日」 「世界속의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韓日」이라는 觀點에서 未來指向의인 協力關係를 더한층 強化하고, 아시아와 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과 繁榮에 貢獻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責務이다.

4. 兩側은 基調講演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 등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 事項에 對해서 認識을 같이하였다.

(1)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여전히 커다란 課題이지만, 이를 改善하기 爲해 韓國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를 圖謀하며, 日本側은 加一層의 市場開放促進에 努力함과 同時에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에 對해 積極的으로 協力한다.

(2) 兩國間의 投資·技術協력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兩國企業間의 相互信賴와 經濟合理性에 立脚한 協力關係의 增進이 基盤이며, 또한 實務的인 諸問題에 關한 兩側의 共通認識의 造成도 必要하다.

韓國은 外國人의 投資 및 技術移轉環境의 整備를 實施하고, 日本은 韓國의 産業技術力向上을 爲해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을 包含한 諸事業을 통해 協力한다.

(3) 中小企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를 爲해 重要하므로 韓國政府 및 經濟界는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 技術等의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側은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等에 의한 技術人材의 育成, 助言等を 實施한다.

(4) 經濟의 發展, 消費水準의 向上에 따라 環境保全은 必야호로 地球規模의 課題가 되고 있다. 兩國은 아시아의 先進工業國으로서, 아시아 및 地球의 環境保全을 爲해 協力한다.

(5) 成熟한 未來志向의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점에 비추어, 兩國은 經濟交流뿐만 아니라, 多様な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相互交流의 擴大에 努力한다.

(6) 現在 進行中인 韓日經濟人포럼에서 率直한 討議가 이루어져, 今後 兩國은 經濟協力關係의 方向에 對해 意義있는 結論이 模索되기를 期待한다.

5. 分科會에서의 提案等에 依據,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6. 次期會議는 來年 봄, 日本國에서 開催한다.

1993年 4月 16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 倉 信 也

(別添)

合 意 事 項

(1) 兩國間의 技術協力增進을 爲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依한 技術提携幹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2) 今年 5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3)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을 加一層 內實化하는 件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5)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6)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 및 技術協力促進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促進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
는 件

第 26 回 共同聲明(1994年)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는 1994年 4月 14日, 15日 兩日間 日本國福
岡市에서 日本側에서는 羽倉信也團長外 141名
이, 韓國側에서는 朴龍學團長外 102名이 參
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 專門委員
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0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1993年
6月 韓國, 서울)
- (2) 第19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3年 10月 韓國, 서울)
- (3) 第12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4年 3月 韓國, 서울)
- (4) 第3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1993年
11月, 日本, 東京)
2. 우선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方向에 대해
다음과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現在, 世界各地에서는 政治的, 民族的,
宗教的對立이 激化되고 있으며, 經濟面에
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妥結에 따른 自
由貿易體制의 維持發展이 確認됨과 同時
에 EU, NAFTA等의 地域共同體가 擴大強
化되는 움직임도 있다.

아시아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으로 世界
經濟에서 큰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
데, 韓國과 日本은 自由貿易의 堅持라는
立場에서 아시아各國과의 共生을 꾀하면

서 아시아와 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
과 繁榮에 貢獻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連, 産業協力,
交流增進 등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事項에 대해서 認識을
같이 하였다.
- (1)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여전히 커다란
課題이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 韓國은
産業構造의 改善과 技術의 革新·開發
에 의한 産業 및 商品의 國際競爭力強
화를 꾀하고, 日本은 規制의 緩和等 加
一層의 市場開放 促進에 努力함과 同時
에 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에 協力한다.
- (2)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を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兩國企業間의 相互信賴와 經
濟論理에 입각한 協力關係의 造成이
그 基盤이 된다. 最近 아시아 各國의
急激한 經濟發展은 아시아地域에서의
投資 및 技術協力の 양상에 變化를 가
져오고 있는 點에 비추어, 韓國은 投
資 및 技術移轉에 關한 各種 環境의
整備을 強化하며, 日本은 韓國의 投資
誘致와 産業技術力向上에 協力한다.
- (3) 兩國은 새로운 아시아의 時代를 構築
하기 위하여 産業構造를 改善하는 한
편, 아시아 各國과의 貿易擴大, 投資·
技術協力を 增大함에 있어 各各 特色
을 살린 協力を 推進한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 (4) 中小企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基盤인 바,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 技術等の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等を 통한 産業技術人材의 育成과 工場運營에 對한 助言等を 한다.
- (5) 兩國間の 未來指向的인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바, 兩國은 多様な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相互交流에 努力한다.
- (6) 昨年 11月 兩國 頂上에게 提出된 「韓日經濟人포럼」 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므로 이를 尊重하고 推進한다.
4. 分科會에서의 提案等に 의거,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4年 4月 15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 倉 信 也

(別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促進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兩國間은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幹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의 日本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 27 回 共同聲明(1995年)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95年 4月 13日, 14日 兩日間 大韓民國 濟州道 西歸浦市中文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27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9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對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1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1994年 6月 日本, 東京)
- (2) 第2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 (1994年 6月 日本, 横浜)
- (3) 第13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5年 3月 日本, 東京)
- (4)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第4回 委員會
會議는 1995年 11월에 서울에서 開催
豫定)
2. 于先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立場에 對해
다음과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韓日國交正常化 30周年이 되는 해에,
WTO라고 하는 보다 廣範圍한 自由貿易
을 推進하는 體制가 發足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東아시아地域은 世界經濟의 成長
센타로서 눈부신 經濟規模의 擴大를 持續
하고 있다. 그 先發國인 韓日兩國은 市場
開放과 産業協力에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
하고, 多樣한 協力을 글로벌하게 展開하
면서 「前進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시아
및 世界經濟의 發展에 寄與해 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識하였다.
3. 兩國은 基調講演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等 各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 事項에 對해서 認識을
같이 하였다.
- (1) 韓國의 OECD加入實現에 의해, 아시
아의 先進國으로서 韓日兩國은 APEC
發展에 對한 協力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課題를 共有하고 새로운 韓日關
係 構築을 指向한다. 그리고 擴大傾向
에 있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擴大
均衡의 方向으로 改善을 指向해야 하
며,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産業構造
의 改善과 技術開發力의 向上등에 從
前 以上の 努力이 要求되며, 日本側에
서도 加一層의 輸入擴大가 必要하다.
- (2) 超門高局面에 對한 對應策의 하나로
日本은 規制緩和와 市場開放의 極大化

를 기하는 한편, 그 企業活動은 海外
로부터의 調達을 包含한 海外展開를
더욱 推進하게 될 것이다. 競爭力의
強化를 향한 韓國의 投資誘致와, 企業
間 産業技術協力關係의 推進이라는 目
標는 日本側의 이러한 흐름과 方向을
같이하는 것이며, 加一層의 成果가 期
待된다.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對한 企業進出
도 向後 活發化되고 兩國間의 紐帶는
더욱 深化될 것이다.

- (3) 韓日은 서로 善隣協力を 통한 共同繁
榮을 指向하는 좋은 競爭相對인 同時
에 秩序있는 市場을 創造하고 育成하
는 파트너로서, 아시아地域을 비롯한
第3國에 對한 産業協力の 길을 摸索하
는 것이 重要的 課題가 되고 있다. 經
濟論理만이 아니라 相對國의 NEEDS
와 文化에 對한 理解를 隨伴한 國際貢
獻의 場에서 韓日兩國은 더한층 協力
을 推進한다.
- (4) 中小部品産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
爭力 基盤強化에 不可缺하며,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해 繼續해서 資金, 技術
등의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
術協力財團의 事業등을 통하여 技術人
材의 育成과 工場運營에 對한 助言등
에 協力한다.
- (5) WTO, OECD라고 하는 새로운 테두리
속에서 韓日間의 協力과 補完體制는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相互理解와 信
賴關係가 그 基礎이며 이를 위해 여러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폭넓은, 특히
젊은 세대간의 相互交流를 더한층 增
進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 (6) 1993年 11月 兩國頂上에 提出된 「韓日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 經濟人포럼」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の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서 尊重하고 이를 強力하게 推進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等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日本에서 開催한다.

1995年 4月 14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倉 信也

(別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2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 日本側은 이 誘致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兩國間の 技術協力增進을 爲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青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28回 共同聲明(1996年)

第28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는 1996年 4月 18日, 19日 兩日間 日本新潟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25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6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2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1995年 6月 韓國, 濟州道)
- (2) 第21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5年 5月 韓國, 濟州道)

- (3) 第14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6年 3月 韓國, 서울)
- (4) 第 4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6年 2月 韓國, 서울)
2. 먼저 兩國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아직도 世界에서는 民族과 宗教의 對立에 기인된 분쟁과 國家間的 政治的 課題 處理를 둘러싼 緊張關係를 보이고 있는 한편, 經濟面에서는 글로벌化·보더리스(borderless)化가 進行되어『無限競爭(MEGA COMPETITION)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의 성장센터』라고 불리우는 東아시아地域의 經濟는 生産據點으로서도, 消費市場으로서도 더욱 확대되면서 그 다이나미즘을 내외에 발휘하고 있다. 그 先發國인 韓日 兩國은 『개방된 地域主義』를 지향하는 APEC의 핵심으로서 그 役割을 遂行함으로써, 世界의 經濟發展에 寄與해 갈 必要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다음 事項에 대해 理解를 같이 하였다.

- (1) 『活力있는 글로벌國家』를 지향하는 日本과, OECD加盟을 계기로 『21世紀의 一流國家로 가는 基盤』을 構築中인 韓國, 두나라 모두에게 規制緩和와 市場開放은 스스로의 將來를 개척하기 위한 課題이다. 兩國 企業은 이에 積極的으로 대응해 가면서 새로운 事業 전개를 꾀하고 이러한 흐름을 선도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2) 兩國 企業의 水平的·補完的인 分業體制와 提携關係, 韓國企業과 製品의 積極的인 日本市場 進出 등 韓日 兩國의 經濟關係는 對等한 同伴者로서의 實態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어느때보다도 『市場經濟論理』가 기능을 발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兩國의 官民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韓日 貿易收支改善의 課題는, 이러한 추세 등에 의해 資本과 技術의 相互移動의 活性化, 韓國의 『資本財産』의 강화와 對日輸出 增加 등의 成果를 거

두어 가면서 兩國 貿易의 擴大均衡에 의해 實現하도록 相互 努力한다.

- (3) 中小部品産業 및 素材産業의 育成은 韓國産業政策의 중요한 課題의 하나인 바, 技術인력의 育成·經營管理技法의 보급 등을 통해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활동이 착실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兩國 官民의 지원을 받아 財團 活動의 加一層의 充實化가 要望된다.
- (4) 高度情報化社會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과 技術의 國際標準化에 대한 이니셔티브, 地域經濟圈의 充實化와 擴大,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努力, 物流의 國際化 등 個別 企業레벨을 넘어선 차원에서, 民間主導로 政治와 外交를 主導해야 할 분야가 많다.
韓日 兩國은 아시아, 나아가서는 世界의 政治的 安定과 經濟發展에 공헌해 가는데 있어서 相互 補完的인 協力, 創造力과 實行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要求된다.
- (5) 兩國 基調演說의 精神을 살려 今後 實踐 可能的인 것을 兩國 合意下에 점차 實現하도록 努力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6年 4月 19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에서 派遣되는 對日投資誘致團의 日本內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4) 兩國間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

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斡旋 事業을 推進하는 件

- (5) 「韓日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29回 共同聲明(1997年)

第29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은 1997年 4月 10日, 11日 兩日間 大韓民國 釜山廣域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17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5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3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6年 6月 日本, 仙台)
 - (2) 第22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6年 6月 日本, 東京)
 - (3) 第15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7年 3月 日本, 東京)
 - (4) 第 5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7年 日本에서 開催豫定)
2. 먼저 兩國 經濟人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現在 世界經濟가 글로벌化・보더리스化가 加速되면서 歷史的인 轉換期를 맞고 있는 가운데, 世界經濟의 成長軸은 아시아地域으로 移轉되어 바야흐로 아시아의 時代가 到來하고 있다.

OECD의 멤버로서 이 地域의 先發國인 韓日 兩國은 市場開放과 産業協力에 加一層 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아시아地域을 무대로 한 韓日 兩國의 成功的인 經濟協力は 悠久한 人類史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의 世紀」를 맞이함에 있어 絶對적으로 重要하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다음 事項에 대해 理解를 같이 하였다.
 - (1) 世界經濟의 大競爭時代를 맞이하여 兩國 공히 金融시스템의 改革을 위시한 構造改革 및 規制緩和・撤廢, 高費

用構造로부터의 脫皮에 대한 挑戰이 進行되고 있고, 이는 스스로의 새로운 活路를 開拓기 위한 必然的인 課題임을 認識하여 兩國 企業은 이에 積極的으로 對應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2) 擴大 傾向에 있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擴大均衡의 方向으로 改善을 持續해야 하며,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素材·資本財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對日輸出 擴大 等に 倍前의 努力이 要求되며, 日本側도 技術 移轉, 輸入擴大, 市場開放 促進에 協力한다.
- (3)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を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兩國 企業間의 相互信賴와 協力關係의 造成이 그 基盤이 된다. 最近 貿易·産業構造 調整과 協力の 場이 兩國 次元에서 아시아 域內로 擴大되고 있는 點에 비추어 韓國은 投資環境을 改善하며, 日本은 韓國의 投資誘致와 産業技術力 向上에 加一層 努力한다.
- (4) 新事業의 活性化를 위한 制度 改善과 技術·製品·部品の 標準化, 物流 條件의 改善, 地域 經濟圈의 充實화와 交流 擴大, 地球環境 保全에 대한 對應, 에너지 開發과 確保, 월드컵 共同開催 等 個別企業 레벨을 넘어선 次元에서 우리 民間 經濟人들이 主導해야 할 分野가 많다. 韓日 兩國은 世界, 특히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安定과 經濟的 發展에 貢獻하는데 있어서 相互補完的인 協力, 創造力과 實行力을 具體的으로 推進해 나가기로 한다.
- (5) 다가오는 21世紀 脫國境化·多元化

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바, 兩國은 이 合同委員會 會議를 비롯하여 多樣한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交流와 成果의 蓄積을 더 한층 增進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봄, 日本에서 開催 한다.

1997年 4月 11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2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에서 派遣되는 對日投資誘致團의 日本內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4) 兩國間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幹旋 事業을 推進하는 件
- (5)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30回 共同聲明(1998年)

第30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1998年 4月 16日, 17日 兩日間 日本 宮崎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金相廈 團長外 123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藤村正哉 團長外 115名과 現地代表 40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一般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諒解되었다.

(1) 第24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7年 9月 韓國, 서울)

(2) 第23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7年 5月 韓國, 서울)

(3) 第16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8年 3月 韓國, 서울)

(4) 第 5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8年 4月, 報告書 發表)

2. 먼저 兩國 經濟人들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하여, 아래 內容에 있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90年代 初에 시작된 日本의 景氣沈滯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를 本格的인 회복 軌道로 복귀시키는 것이, 日本뿐 아니라, 아시아 經濟에 대해서도 최대의 貢獻이 된다. 이를 위해, 日本은 金融改革을 중심으로한 構造改革을 추진하여, 將來에 대한 確信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의 通貨・金融危機는 韓國에도 어려운 試鍊을 가져왔다. IMF와의 合意에 따라, 韓國은 金大中 새 大統領 領導下에 舉國一致體制로 당면한 危機를 극복함과 아울러, 拔本的인 構造改革을 통하여 經濟의 活力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의 글로벌化 時代에 그 주역은 바로 企業이다. 自國의 經濟를 活性化시키고, 아시아와 世界에 대한 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市場原理에 투철한 兩國 經濟人들의 의견한 行動力

이 지금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3.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 등 각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 및 意見交換을 통해 現在의 危機狀況을 극복하고, 아시아 經濟의 재건을 先導하기 위하여, 兩國은 종전보다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事項에 理解를 함께 하였다.

(1) 外國資本의 積極의이고도 長期的인 도입은 韓國經濟의 再建을 촉진시키는 가장 效果的인 手段 中の 하나이다. 世界에서 가장 投資하기 쉬운 매력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기를 지향하는 韓國은, 이를 위해 최대한으로 環境을 정비하는 한편, 日本側은 그러한 努力을 평가하여 投資 促進에 努力하는 同時에 金融面에서도 韓國에 대한 支援이 必要하다.

5月 訪韓 豫定인, 日本의 官民合同投資環境調査團(團長: 藤村正哉 日韓經濟協會 會長)은 새 政權 出帆後의 韓國體制의 큰 進전을 확인하는 최초의 공식 訪問이며, 兩國 官民이 一體가 된 현재의 시기적 利點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成果를 올리는 것이 期待되고 있다.

(2) 基盤産業(Supporting Industry) 育成과 技術開發力 強化는, 對日貿易 不均衡問題의 개선뿐만 아니라, 韓國의 産業構造 高度化와 競爭力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長期的 課題이다. 兩國 企業차원에서 戰略的提携關係가 글로벌經濟의 네트워크와 經濟論理의 軌道위에서 다양화하면서 進전되고 있으며, 技術開發力 強化를 위한 韓國企業의 노력을 보

완할 수 있는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5년간의 활동은 1,500名, 100個社에 달하는 技術人材育成事業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는 時期에 이르렀다.

- (3) 日本市場에 대한 Access 改善을 포함한 日本의 輸入擴大 努力, 아시아 각국을 통한 貿易과 投資 自由化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아시아 지역에 金融協力機構를 개설하는 구상, 나아가서는 東北아시아의 韓·中·日 3개국 協力體制를 環黃海經濟圈이라는 형태로 구축하는 구상등 활발한 提案들이 나왔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 (4) 30年間に 걸친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축적은 兩國의 經濟發展을 담당해 온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意見과 理解, 적극적인 協力과 行動의 歷史이다. 우리는 하나의 단락을 짓는 이 해가 兩國이 동시에 경험하는 고된 시련의 해가 되었다는 점을 깊이 가슴에 새겨, 그 傳統을 이어받아, 글로벌화 時代에 걸맞는 韓日經濟關係를 상징하는 「韓日·日韓經濟人會議」의 보다 開放적이고 활달한 雰囲気가 넘치는 새로운 傳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관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8年 4月 17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相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차례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3) 兩國間 産業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 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4) 「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經濟人會議가 總括하는 專門委員會와 交流事業, 其他 運營方法 等に 대하여 時代의 要請에 따라 이를 再點檢하여, 改革 改善하는 方案을 作成하는 件
- (7) 其他 各種 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件

第31回 共同聲明(1999年)

第31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1999年 4月 8日, 9日 兩日間 大韓民國 서울에서 韓

國側으로부터는 金相廈 團長外 134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藤村正哉 團長外 125名이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一般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諒解되었다.

(1) 第25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8年 11月 日本 東京)

(2) 第24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9年 2月 日本 東京)

(3) 第16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9年 3月 日本 東京)

(4) 第 6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兩委員長 往復書簡으로 合意確認)

2. 먼저, 이번 會議에서 兩國 經濟人들은 兩國 經濟와 兩國關係를 둘러싼 諸般問題에 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을 함께 하였다.

韓國經濟는 昨年 1年間 企業, 金融, 勞動, 公共의 4個 部門에서 構造調整과 改革을 斷行하고 彈力的인 財政金融政策을 驅使함으로써 危機狀況에서 徐徐히 벗어나면서 國際社會의 信認度가 크게 向上되었다.

한편 日本經濟는 公共投資, 減稅 等の 景氣浮揚策, 金融機關에 대한 公的資金投入과 企業의 構造調整努力 等으로 長期不況에서 脫皮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現在 兩國는 實物經濟가 多少 回復되고 있으나 同時에 金融機關을 包含한 企業의 過當競爭體質에서 비롯된 過剩債務, 過剩設備, 過剩人力調整과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의 改善 等 어려운 課題가 山積해 있다.

兩國이 이러한 構造的 問題를 解決하여 自律成長軌道에 進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政府主導의 構造改革만이 아

니고 産業과 企業이 從來의 延長線上的 改善・改良이 아닌 보다 創造的이고 다이내믹한 競爭力을 創造하고 國境을 超越한 眞正한 企業間 競爭과 協力에 積極 同參해야 한다.

IMF體制 以後의 日本의 一連의 對韓 金融支援, 兩國頂上의 相互訪問을 비롯한 兩國 政府 高位級의 協調와 이를 위한 兩國 企業人들의 環境整備 努力은 過去에 볼 수 없을 程度로 刮目한 것이며, 이러한 兩國間에 造成된 善隣友好關係가 아시아의 再生, 東아시아의 安定과 發展으로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우선 兩國間の 자유롭고 開放된 經濟活動을 制約해 온 各種의 潛在的인 障礙要因을 果敢히 除去하기 위한 政府와 民間의 努力이 加一層 要請된다.

同時에 새로운 millenni엄을 맞이하면서 아시아의 正當한 主張이 世界的 去來規範(Global standard)에 公正하게 反映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시아經濟共同體 形成이라는 遠大한 目標을 향해 韓日 兩國이 지금 以上으로 緊密하게 相互協調해야 한다.

3. 基調演說, 貿易關聯, 産業協力 및 交流增進 等 各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는 現在의 構造改革을 加速化함과 同時에 이에 따른 弊害를 極小化하기 위해 새로운 分野에 果敢히 挑戰하는 經營姿勢와 이를 可能케 하는 兩國 固有의 보다 柔軟한 經營시스템을 構築, 相互 切磋琢磨하는 關係로 前進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에 理解를 같이 했다.

(1) 市場經濟體制아래 競爭力을 提高하는 責任은 어디까지나 民間에 있으며 자

유로운 활동을妨害하는 既存의 물이나 制度는 果敢하게 撤廢함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에 對應하는 한편 消費者 保護, 弱者救濟, 公正競爭이 可能하도록 民主主義와의 調和가 可能的 體制를 整備해 가야 한다. 同時에 經營에 대한 責任과 規律이 그 어느 때 보다 要請된다. 아시아의 風土와 傳統 속에서 이러한 市場經濟의 改革이 어떠한 創造의인 아시아모델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인지 兩國 經濟人들은 자유로운 論議에 同參할 때이다.

- (2) 世界的으로 擴散되고 있는 地域統合의 움직임 속에서 最近 아시아危機를 함께 經驗하고 있는 韓日 兩國이 아시아域內協力を 한층 強化하는 手段으로서 自由貿易協定の 必要性이 急速히 提起되고 있다. 이미 兩國間 投資協定은 조만간 實現될 可能性이 높고 自由貿易協定은 短期的으로는 規制와 保護障壁이 높은 業種일수록 摩擦이 豫想되지만 中長期的으로는 相互利益을 확보해 줄 것이다. 今年 3月, 韓日首腦會談時 合意된 「經濟 Agenda 21」은 將來의 自由貿易協定の 可能性을 염두에 두면서 投資協定, 租稅條約, 基準·認證 및 知的 所有權 等の 分野에 대해서 兩國間 經濟活動의 當面한 障害를 除去해 가는 것을 確認한 것이지만, 同時에 이것은 兩國이 아시아經濟의 再生等 共通의 課題에 같은 視線으로 對處하고자하는 體制構築을 指向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經濟人은 스스로의 積極的인 行動으로 兩國 政府의 眞摯한 努力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最近 韓國은 從來의 外資 規制에서 積極的인 外資誘致로 一大轉換을 試圖하여 各種 인센티브를 擴大하고 支援體制를 強化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歐美의 對韓投資가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日本은 景氣後退로 體力이 弱화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M&A를 비롯한 對韓 直接投資가 增加하고,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을 中心으로 서포팅 인더스트리의 技術人力養成 協力 等の 成果를 着實히 蓄積해 오고 있다. 앞으로 韓國은 韓國企業固有의 經營戰略, 商慣行, 法, 制度 等の 國際的 調和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日本은 그 努力을 評價하고 韓日官民合同投資促進協議會 等を 통해서 投資의 促進에 努力한다.
- (4) 兩國의 業界가 構造改革과 産業再編을 實施해 나갈 때, 現在와 같이 自國內의 業界와 設備만을 對象으로 할 것이 아니라 國際競爭力의 視點에서 國境을 超越한 business alliance의 構築을 圖謀하고, 戰略的效果를 達成한다는 새로운 次元에서의 對應이 政府의 支援을 包含해서 必要하다.
4. 各 分科會에서의 提案 等に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은 來年 日本에서 開催한다.

1999年 4月 9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차례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3)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

- 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6) APEC投資博覽會 開催에 대해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 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件

第32回 共同聲明(2000年)

第32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0年 6月 1日, 2日의 兩日間 日本國 東京都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外 148名이, 日本側에서는 藤村 正哉 團長 外 137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貿易投資委員會・機械工業委員會・産業一般委員會의 세 專門委員會를 統合하여 새로 發足한 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 없이 報告를 마쳤다.
 - (1) 第1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1999年 10月, 日本・千葉)
 - (2) 第10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會議 (1999年 11月, 日本・福岡)
 - (3) 第18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2000年 3月, 韓國・서울)
2. 먼저 基調演說 등을 통해 兩國의 經濟人은 兩國經濟와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은 事項에서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日本經濟는 長期間의 景氣沈滯에 대해

서 稅制・法制・經濟運營・企業經營 등 다양한 分野에서, 官民 모두가 構造改革 努力을 持續해 온 結果, 이제 景氣回復의 움직임이 鮮明해지고 있다. 民需主導의 自律回復軌道로의 復歸를 確實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民間의 主體的 努力이 大前提가 되고, 企業은 지금이야말로 企業家 精神을 發揮하여 雇用을 擴大하고 經濟新生을 리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經濟는 97年 金融危機 以後, 金融機關의 統廢合을 비롯한 시스템改革, 企業經營의 改善과 透明性の 確保, 規制의 緩和・撤廢 등 官民合同이 構造改革의 努力을 한 結果, 消費・投資・輸出이 急速히 回復되어 本格的인 回復軌道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過剩設備 등 根本的인 原因解決의 努力이 必要하다.

今年 6月 中旬으로 豫定된 歷史的인 南北頂上會談은 向後 日本과 中國을 包含

한 東北아시아經濟圈의 展開에도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이 經濟圈안에서 보다 效率이 높은 分業構造를 追求하고 디지털·네트워크經濟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協力方向을 摸索하는 것은 우리 經濟人의 目標이다.

東아시아地域의 連帶와 協力の 先鋒이 될 수 있는 韓日自由貿易協定 構想이 將來 實現될 것을 상정해 投資協定交渉 등 그 基礎가 될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兩國政府의 努力이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實物經濟를 깊어지고 있는 兩國의 經濟人들도 協調와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兩國企業은 글로벌한 事業展開을 꾀하는데 있어, 보다 폭넓은 多國間關係 속에서 兩國關係를 摸索하며, 貿易과 投資의 擴大, 그리고 自由化의 促進, 部品·素材産業 育成的 支援 등 兩國間의 課題를 둘러싼 成果와 經驗을 살려가면서, 특히 東南아시아 各國의 經濟體質을 加一層 強化시키는데 率先해서 貢獻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3. 各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새로운 千年을 맞아 더욱 激變하는 世界經濟에 對應해야 할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서 意見一致를 보았다.

- (1) 兩國 固有의 文化를 서로 尊重하여 傳統과 價值觀의 差異에 대해서도, 이를 냉정히 認識한 後 보다 普遍的인 基準이나 物과의 整合性 確保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認識의 共有, 共通의 價值觀의 形成, 兩國의 오피니언리더들의 相互理解와 信賴關係의 造成은 直接投資나 새로운 business alliance의 擴大에도 필수적인 스텝이다.

- (2) 인터넷의 發達, IT-eB(情報技術과 電子商去來)時代의 到來은 우리의 思考·制度·慣行·組織의 變革을 통해서 經濟, 社會, 文化 全般에 큰 變革을 가져왔으며, 豫測을 불허할 程度로 急速한 成長을 實現하고 있다. 向後 兩國 經濟成長의 KEY가 되는 것은 IT(情報技術)이고, 이것이가져올 無限한 비즈니스 チャン스를 兩國 企業이 더욱 活用해 나가기 위해서는 兩國의 社會全般에 걸친 信賴關係의 形成이 必要하다는 점을 우리는 共通으로 認識하고자 한다.

- (3) 다시 增加勢로 돌아선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와 關聯하여, 그 對策으로서 전부터 實施되어온 韓國의 部品·素材生産部門, 즉 supporting industry와 그 實質의인 基盤이 되는 中小企業部門의 強化·育成策은 知識産業·소프트産業의 時代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장 重要한 課題中の 하나이다.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의 活動도 이미 8年째에 접어들어 産業人力育成事業, 生産性向上을 위한 現場指導事業 등을 活潑히 實施해오고 있으며, 韓國部品産業의 技術레벨과 競爭力의 向上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施策의 有效性을 檢證해 나가면서 重要項目에 대한 事業의 집중과 資金活用の 效率化를 더욱 圖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이번 會議에서 兩國 共通의 具體的 테마로써 地球次元에서의 對應을 必要로 하는 環境問題가 報告되어 兩國이 協調하여 東아시아地域의 環境保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全에 對應할 必要가 있다는 것에 認識을 같이 하였다. 兩國은 蓄積된 經驗과 技術을 活用하여 競爭優位를 確保하면서 世界의 環境保全에 寄與할 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兩國間의 地域間交流를 더욱 擴大하는 것은 經濟 및 文化交流를 加一層 活性化하고, 나아가서는 近隣 東北 아시아地域의 經濟活性化와 모델經濟圈의 形成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各 分科會에서의 提案 等에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韓國에서 開催한다.

2000年 6月 2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相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兩國 「페스티벌」事業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3回 共同聲明(2001年)

第33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1年 4月 12日, 13日의 兩日間 大韓民國 光州廣域市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外 122名이, 日本側에서는 藤村 正哉 團長 外 124名이, 그리고 光州地域 企業人 30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第2回 韓日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 없이 諒解되었다.

(1) 第2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2000年 11月, 韓國 서울)

- (2) 第11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會議 (2000年 10月, 韓國 서울)
- (3) 第19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2001年 2月, 日本 東京)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의 經濟人은 兩國經濟와 兩國關係에 對해 다음과 같은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外換危機 以後 비교적 빠른 回復勢를 보였던 韓國經濟는 企業不實處理와 金融圈 構造調整의 遲延 等에 의한 景氣의 冷却, 그리고 國際原資材 價格의 急騰과 韓

國 主力輸出商品의 價格下落이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政府의 積極의인 景氣回復 努力으로 消費心理가 回復되는 등 景氣展望이 다소 好轉되고는 있지만 世界 主要國들의 不透明한 經濟狀況으로 對外依存도가 높은 韓國經濟의 展望은 樂觀을 不許하고 있다.

한편 日本經濟도 거품經濟의 崩壞 以後 오랫동안 深刻한 不況이 持續되고 있다. 글로벌化, IT革命의 世界的인 潮流속에서 構造調整에 必死的인 努力을 傾注해 왔지만, 金融機關이 안고 있는 不實債權問題, 消費의 不振 등 本格的인 回復까지는 아직 時間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兩國은 現在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다시 本格的인 成長軌道에 進入할 수 있는 充分한 力量과 經驗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徹底한 構造調整과 改革의 推進을 통해서 經濟의 體質을 根本的으로 變化시키고, 韓日 兩國의 長點을 살려 産業 및 交易構造를 相互補完의인 것으로 改編시켜나가야 한다.

韓日 兩國은 21世紀에 아시아經濟의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의 中心役割을 遂行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協力關係가 構築되어야 한다. 兩國은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과 産業協力으로 水平分業 등을 實現하고 安定的인 競爭의 協力體制를 이룩해야 한다. EU에서의 獨逸과 프랑스의 經濟關係는 韓日 兩國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東아시아 國家들이 向後 나아가야 할 協力 方向을 提示해 주고 있다.

向後 世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나갈 IT와 e-Business 革命에 兩國은 積極

對處해 나가야하며 共同努力이 매우 重要하다. 이를 위해 昨年 9月 兩國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韓日 IT協力 이니셔티브’를 具體化하기 위한 多樣한 協力이 民間레벨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世界經濟의 地域經濟統合의 增加趨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아시아地域의 連帶와 協力の 先鋒이 될 수 있도록 韓日 FTA 實現을 향해 持續的인 努力이 要求된다. 이를 위해서는 兩國에 既設置된 ‘韓日 FTA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協定締結이 가져올 否定的인 面을 極小化하고 肯定的인 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方向과 對策이 마련될 수 있도록 兩國 經濟人이 智慧를 모아야 한다.

3. 各 分科會,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 IT産業, 電子商去來 등 인터넷을 活用한 事業은 向後 그 規模가 爆發的으로 擴大될 것이며, 企業經營, 個人生活, 中央과 地方政府의 技能 및 行政서비스 등을 根本的으로 바꾸어 놓게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時代로의 圓만한 進入을 위해서는 政府의 積極的인 規制緩和, 通信코스트의 節減等 인프라擴充, 리스크 防止를 위한 各種制度의 改善 등 環境의 整備가 必要하며, 이를 위한 兩國間 協力の 餘地는 크다.

(2) 國際化의 進展으로 全世界는 國境없는 無限競爭의 時代로 突入했다. 이제 政府는 自由롭고 透明하며 公正한 市場을 實現하고 企業이 國際的으로 同等하게 競爭할 수 있는 環境整備를 徹底히 해야 하며, 企業은 自律과 自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己責任의 原則下에 自由스럽고 公正한 競爭을 해나가야 한다. 글로벌化에 對備하기 위한 韓日 兩國企業의 戰略的인 提携는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相互 國際競爭力의 強化에 寄與할 것이다. 또한 向後 兩國의 金融서비스分野에서의 多樣한 協力도 必要할 것이다.

- (3) 部品·素材産業은 構造調整期에 있는 韓日 兩國 製造業의 競爭力을 左右할 것이며, 이 分野의 知識·經驗은 兩國이 繼續 갖고 가야 할 貴重한 財産이다. 最近 이 分野에서 兩國의 協力事例가 增加하고 있는 점을 評價하고, 協力이 더욱 強化될 수 있도록 各種 制度改善 等 環境整備에 兩側은 더욱 努力해야 한다. 이와 함께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이 遂行하고 있는 韓國 서포팅인더스트리에 대한 各種 支援活動이 더욱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兩國 經濟界는 協力해야 한다.
- (4) 韓日 地域間 交流를 先導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후쿠오카(福岡)縣의 事例와 오랜 經驗은 向後 地域間 交流를 推進코자 하는 他地域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地域間 交流는 國家間 交流의 土臺이며 2002年 韓日 월드컵의 共同開催는 地域間 協力的 큰 契機를 만들어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交流가 비즈니스次元까지 擴大發展되기 위해서는 國際物流部門에 대한 인프라 擴充 等이 積極的으로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光州廣域市가 意慾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光産業育成事業, 그리고 日本側으로부터 日本資本市場의 最近의 動向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兩國 經濟人들로부터 높은 關心이 表明되었다.
4. 各 分科會 및 全體會議 等에서의 提案 等에 關係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에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1年 4月 13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 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의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韓日·日韓交流祭」事業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